
THE SON
FERDINANDO FREGA

아들

THE FAMILY · 13

세 단어로 충분했던 아버지 —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몇 년 뒤의 어느 아침, 아들은 같은 평온이 자기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다.

Gillettenarrative가 당신을 환영한다. 당신은 아직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른다 — 무언가를 받게 될 참인데, 아무도 그 대가로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 나의 세계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면도날에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그러나 나는 면도날을 팔지 않는다. 그 날은 오직 나의 어머니의 것이다. 이것이 끝날 때, 당신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이미 다음 것을 찾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여기서 시작하라. 당신의 시간을 가져라.

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아들로서 어머니를 닮을 가능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 적어도 의학 문헌은 그렇게 말하고, 이번만큼은 반박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생김새 너머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 나중에 찾아오는 무언가. 그것은 세월을 거치며, 남은 흔적 속에서, 남들이 주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속에서 드러난다.

정체성은 X 인자에서 시작될지 모르지만, 유전이 어디서 끝나고 인간다움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는 아무도 정말로 알지 못한다. DNA는 몸을 설명한다. 삶은 나머지를 설명한다.

사람들은 지능이 어머니에게서 온다고 말한다. 그렇다. 그러나 성격은 공식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몸짓과 습관과 선택과 침묵을 통해 떠오른다. 윤리, 기질, 품격, 존재감. 한 인간의 보이지 않는 건축.

그리고 조만간 누군가가 말한다. "그 애는 제 아버지를 꼭 닮았어." 모두에게 보인다.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

어떤 아들도 온전히 자기 아버지는 아니다. 어떤 딸도 온전히 자기 어머니는 아니다. 우리는 모두 놀라움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더 큰 게임에 속해 있다. 그런데도 내 경우, 마지막 답은 간단해 보였다.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

그 우아한 분은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거의 노래처럼 들렸다.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와 스페인어가 묘하게 뒤섞인, 몇 마디 단어만 실린 노래. 세 단어로 충분할 때가 많았다. "내가 여기 있다."

몇 년 동안 우리는 그 말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다 어느 날 불가능한 일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불가능 앞에 서서,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1달러만 내면 된다."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이 진정 누구인지 이해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였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계시는 아니었다. 진짜 계시는 몇 년 뒤에 왔다. 어느 아침 나는 어려운 상황에 같은 평온으로 대답하는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말하기 전의 같은 침묵. 결정하기 전의 같은 미소. 그리고 한순간, 아버지가 방 안에 들어오신 것만 같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들어오신 것이 아니었다.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다.

무엇이 남았는가? 익숙한 얼굴. 다른 소리를 지닌 목소리. 여전히 시간을 가로질러 울리는 하나의 인격. 모든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리다. 살아남는 소리. 영혼을 실어 나르는 소리.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놀라움이었다. 나는 평생 내 기억 속에서 아버지를 찾으며 살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처음부터 줄곧 나의 선택들 안에서 살고 계셨다.

그분은 그저 나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어쩐지, 지금도 그렇다.

Ferdinando Frega
Gillette Man ⚔️